



## 우리의 옛 등잔을 찾아서...

①9 뚜껑형, 돌기형등잔

종지형등잔이 등잔의 심지를 가장자리 쪽으로 내어 사용했다면, 뚜껑형등잔은 가운데 돌기(突起)가 있어 그곳에 심지를 세워 사용하였다. 등잔의 형태로 보아 따로 심지 고정장치를 두거나 또는 새발심지처럼 네 가닥으로 심지를 꼬아 그 중 세 가닥을 새의 발처럼 포개고 한 가닥을 세우는 형태를 취했을 것이다. 간혹 돌기 부분에 따로 홈을 내어 그곳에 심지를 꽂아 사용한 경우도 있다. 이 등잔은 종지형등잔처럼 따로 등잔대를 두지 않고, 집안 어느 곳이든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놓고 사용하였다. 삼국이나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을 보면, 그 역사 또한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, 이 경우 더러 뚜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. 그 형태가 마치 어떤 용기의 뚜껑처럼 생겨 그렇게 판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. 등잔의 연료는 종지형등잔과 차이가 없으며, 재질 또한 시대에 따라 토기나 자기(磁器), 도기(陶器), 납석(蠟石) 등의 형태가 있다.

사진3

설명 민병근(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)

사진 경주대학교박물관, 국립민속박물관 제공

사진 1) 곱돌돌기형등잔[蠟石突起形燈盞] 조선시대 // 지름 7cm, 높이 3.5cm 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 2) 백자뚜껑형등잔[白磁 뚜껑形燈盞] 조선시대 // 지름 12cm, 높이 3cm // 한국등잔박물관

사진 3) 토기뚜껑형등잔[土器 뚜껑形燈盞] 통일신라시대 // 밑지름 6.1cm, 윗지름 8cm, 높이 2.5cm // 미륵사 지유물전시관